순수엔지니어링최대규모의 쿠웨이트윤활기유프로젝트 수주

김중겸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 선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엔지니어링업체로 거듭날 터 ”

현대엔지니어링이 쿠웨이트에서 3,700만달러규모의윤활기유프로젝트를수주했다. 이번수주액은국내업체가 해외에서따낸 순수 엔지니어링(설계+컨설팅+관리) 규모로는사상최대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슈아이바 정유단지에건설되는연간40만톤생산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으로, 오는 2011년 상반기완공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이번 수주를 통해 라이센서 선정 지원 업무를 포함, 설계 · 구매 · 시공 · 시운전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 최일선에서 뛰었던김중겸현대엔지니어링사장은“ 그동안 외국선진엔지니어링사가독점해왔던고급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서 당당히 겨루어 사상 최대의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수주함으로써한국엔지니어링업체의위상과실력을대내외적으로확인하고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고 밝혔다. 김 사장은 “ 이번 프로젝트와 같이 고도화된 FEED(Front - End Engineering Design · 공정기본설계)/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e)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종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층 고도화된 형태의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 업무영역을소화해내기 위해 전문 기술 부서를 구성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각종 업무 표준 절차를 정비하고 IT 시스템에 기반한 전문 설계 및관리수행 툴을지속적으로개발해왔다 ”고말했다. 이러한점이이번프로젝트 수주에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사장은 판단하고있다.

“ PMC나 FEED 부문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해 온 사업 분야입니다. 설계, 구매, 시공 및 사업 관리 기술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 없이는 불가능한사업영역이지요. ”김사장의말처럼 외형적금액만으로볼때는해외건설수주액이 올해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대형 발주처들은 여전히 FEED를 포함하여 PMC 등 고급 엔지니어링영역에관한한여전히외국의유수엔지니어링 업체들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게다가EPC 영역에서도중국등후발업체의추격이만만치않아중동이우리의플랜트산업의 텃밭이던 시대는 사실상 지나갔다고도 볼 수 있다. 김 사장은 “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지않고서는결코더이상성장할수도살아남을수도없다는위기의식을가져야한다 ”고강조했다.

30여 년 간의 현대건설 재직 기간 동안 홈타운, 하이페리온, 힐스테이트등3개주택브랜드를신규런칭하기도했던김사장은올1월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사장에취임했다. 김사장이취임후가장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고급엔지니어링기술력육성 .’ 이의일환으로 R&D 분야에 금년 60억원씩 투자하는 등 원천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국내에서 남극까지 장비를 직접 운송해 짧은여름, 열악한기후조건을극복하고남극킹조지섬에건설했던세종과학기지가가장기억에남는다는김사장은지난 30여 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긍심으로 50여 개 국가를 발로 뛰어다녔다는 우리나라해외건설사의산증인이다.

“ 선진기술개발과새로운각도의수주전략으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미국 ENR지 선정‘ 2007 엔지니어링해외매출분야 에서 2007년 73위에서 2010년에는세계 50위권내에진입할계획 ’을 세우고있다는 김 사장은 “ 큰 기업(Big Company)이아닌 좋은기업(Good Company)을지향하고있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